

+ 찬미 예수님

오늘을 "성지주일" (환호와 열광),
또는 "수난주일" (아픔과 죽음) 이라 하며,
이 둘을 합쳐서 "주님 수난 성지주일" 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은 성주간이라 하여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전례적으로 재현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특히 주님 만찬 미사(세죽례)(목) - 예수 수난 예절(십자가
경배)(금) - 부활 성야 미사(빛의 예절 : 세례 갱신식)(토)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성삼일 예절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주님의 고통을 묵상하고 진정한 회개로
그 고통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해야겠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예수를 열렬히 환영하다가 며칠 만에 돌변하여
그분을 죽이라고 악을 쓰는 군중 속에 섞여
고함지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고개를 숙여 봅니다.
자신의 편리와 이익에 따라 쉽게 변하는 우리들,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큰소리치다가
위기가 닥치자 스승을 저버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은
신앙에 굳건하지 못하여
조그마한 시련에도 쉽게 흔들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또다시 반복 됩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던
예수님을 닮아 가려면
세상 것을 향한 나의 마음을 버리고,
믿음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버려
이웃을 향하여 사랑의 눈길을 보내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야겠습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작은 빛과
희망의 등대가 되는 기쁨의 한 주일이 되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토마스